



제주 신규 박사 취득 전국의 0.8% 그쳐

작년 전체 1만498명 중 79명으로 2023년 수준 회복 못해
성비 2014년 7대3서 지난해 6대4로 좁혀져… 서울은 비등

2020년 이후 3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제주지역 대학에서의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가 2024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간 전국에서 차지한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한국직업능력원이 발표한 '내신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응답자 기준)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제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는 전국 1만498명 중 79명으로 0.8% 수준

에 머물렀다. 전국 인구대비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성적이다.

해당 조사는 전국 200여 개 대학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이 4146명 (39.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1276명 (12.2%), 경기 1230명 (11.7%) 등의 순이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63명 (0.6%)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

물렸다. 나머지 지역들은 1~5%대를 점유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앞서 2020~2024년 제주의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는 2020년 60명 (0.7%), 2021년 85명 (0.8%), 2022년 87명 (0.8%)에 이어 2023년 96명 (0.9%)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 66명 (0.6%)으로 급락했다. 통계 조사가 이뤄진 2014년 68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적게는 연간 52명에서 많게는 70명의 신규 박사를 제주에서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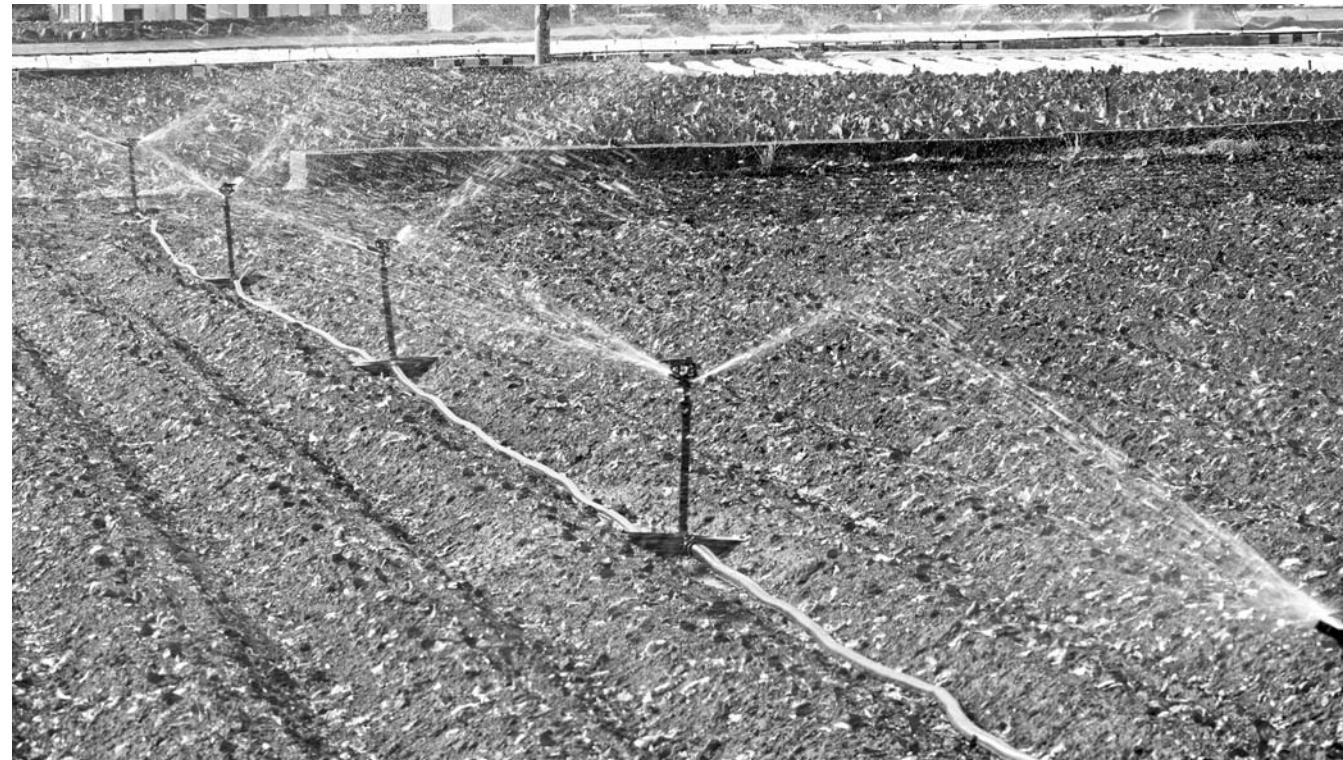
성별로는 ▷ 2014년 남성 49명 (72.1%), 여 19명 (27.9%)에서 ▷ 2020년 남성 35명 (58.3%), 여성 25

명 (41.7%) ▷ 2025년 남성 50명 (63.3%), 여성 29명 (36.7%) 등으로 성비가 좁혀졌다.

지난해 서울은 남성 2187명 (52.7%), 여성 1959명 (47.3%)으로 비등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응답자(재직자 7005명 기준)의 연봉 수준은 ▷ 2000만 원 미만 10.4% ▷ 2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27.2% ▷ 40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 19.8% ▷ 6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 14.7% ▷ 8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1.9% ▷ 1억 원 이상 15.9%로 집계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단비 같은 스프링클러 2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땅에 물을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유연근무제 이용 공직자 급증

지난해 2만2385건… 1년새 2배 이상 증가

제주지역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청 공직자의 유연근무제 이용 건수는 2만2385건으로 전년 910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직자들은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주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

제를 선호했다. 탄력근무제 이용 건수는 지난해 2만897건이었다.

또 재택근무는 2024년 190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늘었고, 본정에 오지 않고도 특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도 2024년 163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증가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 직원 전원이 재

업무 효율성 증대와 심리적 안정, 출퇴근 편의 등을 꼽았다.

현재 제주도는 부서장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서원들의 유연근무 사용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원격근무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해 집이나 원격근무자에서도 개인 컴퓨터로 행정 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는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시간 사용 실적도 부서장 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도 내 공직자 대상

AI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추진된다.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창의와 혁신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올 한 해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총 248개 과정, 1658회, 10만6232명 규모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AI 기반 디지털 전문교육, 국·도정 핵심가치 이해 및 정책 실행력 강화, 공직자 생애주기별 역량 교육, 도내외 교육훈련 기관 협력 확대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AI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AI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급(일상 활용), 중급(데이터 시각화), 고급(AI 모델 설계) 과정으로 세분화해 220명의 전문인력 육성한다.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는 공공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정책 수립과 실행 기간을 단축하고 AI 기반 시스템으로 민원을 응대해 도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 업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밀성(밀양)박씨 은산부원군파 제주도종친회 정기총회 안내

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기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종친님을 모시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송조, 애종, 육영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년 하례회」를 겸하여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시 2026년 1월 31일(토요일) 11:00
장소 본회 종친회관(애월읍 항동로 34, 하구2리)

■ 참석대상 :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종친
- 신년 하례와 48차 정기총회
- 입원 개선
- 참석자 오찬 및 교통비 제공

* 문의 및 연락처
회장 (박승석) 010-9898-8883
청년회장 (박승국) 010-2006-1530

밀성(밀양)박씨 은산부원군파
제주도종친회장 박승석
제주도청년회장 박승국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 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祉(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 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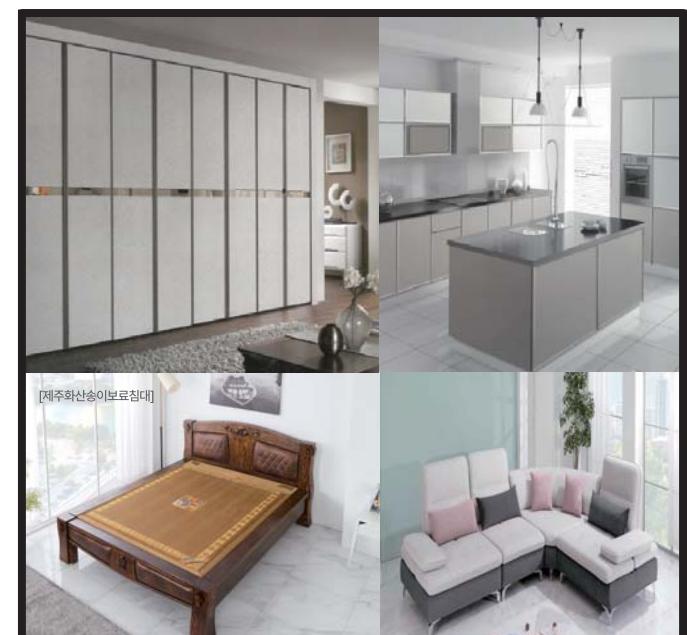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

향년 73세… 심근경색 응급 이송후 회복 못해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 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자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를 만인 이날 오후 2시48분 쯤(현지시간) 사망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이해훈, 인사청문 이틀만에 낙마

논란 소명에도 여론 악화일로에 李대통령 결단



특히 이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장막을 쳐 초고가 아파트인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 타스 청약에 당첨

됐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 부부의 관계가 나빠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게 결정적이었다.

청문회를 거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도 이 후보자를 지켜주기 어렵겠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명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선 '12·3 비상계엄 응호' 이력 등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했는데, 불법과 도덕성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방어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연합뉴스

본사 이전 한국비에임아이 450억 원 재투자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의약품 제조 기업인 한국비에임아이가 450억 원을 들여 신공장을 증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한국비에임아이와 이런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비에임아이는 2028년까지 총 450억 원을 들여 제주 첨단과학단지에 제조설비 구축 등을 위한 신공장

장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비에임아이는 2010년 본사를 이전했다. 본사 근무 직원은 220명이다. 한국비에임아이는 2023년 계획을 뛰어넘는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국비에임아이는 공장 증축 등을 위해 450억 원을 재투자하며 2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